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자기조절 매개효과와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Caregiver-Child Emotional Interact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Self-Regulation as a Mediator and Nonsupportive Emotional Responses as a Moderator of the Indirect Effect

1차원고접수: 2026.04.10. 수정원고접수: 2026.06.09. 최종게재결정: 2026.06.21.

박지영¹ · 한유진²

¹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²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Jiyoung Park¹

Yoojin Han¹

¹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유아의 자기조절 매개효과와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를 둔 주양육자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정서적 상호작용과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중요한 정서사회화 맥락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조절된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self-regula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nonsupportive emotional respon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child emotional interact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205 primary caregiver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analyzed using SPSS 26.0 and PROCESS macro Model 7. The results indicated that caregiver-child emotional interac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self-regulation and prosocial behavior. Self-regula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child emotional interact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addition, nonsupportive emotional response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child emotional interaction and self-regula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significa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aregiver-child emotional interaction influences prosocial behavior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rough self-regulation, and that nonsupportive emotional responses serve as an important emotional socialization context. The findings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al processes underlying prosocial behavior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Keywords caregiver-child emotional interaction, self-regulation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prosocial behavior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nonsupportive emotional responses, moderated mediation

* 이 논문은 2025년도 명지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to 한유진(Yoojin Han)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E-mail. yjhan@mju.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협력, 배려, 도움 제공과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포함하는 핵심적인 사회정서 발달 지표로, 또래 관계 형성 및 사회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후 학교 적응과 사회적 기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다(백지숙, 권은주, 2017; 송순옥, 2017; 유희, 2022; 이은혜, 강정원, 박성혜, 2020; Denham, Bassett, & Wyatt, 2012). 영유아기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적 적응의 기초가 된다(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특히 영유아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협력, 나누기, 배려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점차 발달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은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는 다양한 개인 내·외적 요인이 작용하지만, 특히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영유아의 사회적 행동 발달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강선주, 임선아, 2020; 이안숙, 차미숙, 2024; 최혜윤, 2017).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정서 신호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정서적 조율을 포함하는 관계적 과정으로, 영유아가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 전략을 내재화하는 중요한 환경적 맥락으로 기능한다. 영유아는 발달 초기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통해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공동조절(co-regulation)의 경험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공동조절은 부모가 영유아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지와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Kopp, 1989; Thompson, 2014).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외적 조절은 점차 영유아의 자기조절로 내면화되며 발달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즉,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공동조절 경험을 통해 자기조절 발달을 촉진하는 발달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자기조절 수준이 높은 영유아는 충동을 억제하고 또래의 정서를 이해하며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배려, 도움 제공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5). 국내 연구에서도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련이 있으며, 자기조절이 영유아의 사회적 행동 발달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백지숙, 권은주, 2017; 송순옥, 2017; 유희, 2022).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자기조절 발달과 관련되며, 발달된 자기조절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조절은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발달적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발달 과정은 모든 가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주양육자의 정서 반응 방식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영유아의 정서 표현을 무시하거나 축소하고 처벌하거나 회피적으로 반응하는 양육 태도를 의미하며(Eisenberg & Fabes, 1994), 이러한 반응이 반복될 경우 영유아의 정서 이해 및 조절 경험이 제한되어 자기조절 발달과 관련된 경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양육자의 정서 반응 방식이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선주, 임선아, 2020; 이안숙, 차미숙, 2024; 임지연, 2024). 이러한 결과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발달적 경로가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정서 표현

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정서적 조율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 경험을 조직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발달 초기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양육자의 도움을 통해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서사회화 관점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정서 이해와 정서조절 전략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isenberg & Fabes, 1994). 부모가 영유아의 정서 표현을 수용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할 경우 영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전략을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자기조절 발달의 기반이 된다. 반면 정서적으로 비일관적이거나 제한적인 상호작용은 자기조절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Denham et al., 2012;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이러한 과정은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공동조절(co-regulation)의 경험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공동조절은 부모가 영유아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지와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Kopp, 1989; Thompson, 2014). 부모의 외적 조절 경험이 반복되면서 영유아는 점차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자기조절 발달의 기초가 된다. Kopp(1989)와 Thompson(2014)은 부모와의 공동조절 경험이 영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형성의 중요한 발달적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주양육자의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정서조절 및 행동조절 능력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isenberg et al., 2005; Morris et al., 2007). 국내 연구 역시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정서표현 및 정서반응 방식이 영유아의 자기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강선주, 임선아, 2020; 이안숙, 차미숙, 2024; 최혜윤, 2017).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영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자기조절 발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순옥, 2017; 송해민, 2025).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자기조절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적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기조절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 행동 및 주의를 상황의 요구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영유아기 사회정서 발달의 핵심 역량으로 간주된다(이정란, 2007; Eisenberg, Spinrad, & Eggum, 2010; Kopp, 1989).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친사회적 행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조절 수준이 높은 영유아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고려하여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배려, 나누기 및 도움 제공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isenberg et al., 2005; Valiente, Lemery-Chalfant, & Castro, 2007).

특히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발달적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부모와의 공동조절 과정에서 영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뿐 아니라 충동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 부모가 영유아의 좌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경우, 영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조절 경험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외적 조절은 점차 영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으로 전환되며, 영유아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Eisenberg 등(2005)과 Valiente 등(2007)은 자기조절 수준이 높은 영유아일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력적이고 배려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기조절 능력이 친사회적 행동 발달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기조절은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자기조절 수준이 높은 영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력적이고 배려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사회적 유능성 및 또래 유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Eisenberg et al., 2005; Valiente et al., 2007).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조절은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백지숙, 권은주, 2017; 송순옥, 2017; 윤경미, 한세영, 2017; 이안숙, 차미숙, 2024; 장윤교, 김선희, 2026; 최혜윤, 2017).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볼 수 있다.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영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해 무시하거나 축소하고, 처벌하거나 회피적으로 반응하는 양육 태도를 의미한다(Eisenberg et al., 1996;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이러한 반응은 영유아의 정서 표현을 제한하고 정서조절 전략의 학습 기회를 감소시켜 자기조절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희진, 김정화, 2023; Fabes et al., 2001). 부모의 정서 관련 양육 방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비지지적 정서반응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두 개념은 부모-영유아 관계에서 설명하는 수준과 기능 측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정서적 상호작용은 부모와 영유아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정서적 민감성, 수용성, 공감 및 정서적 조율과 같은 관계 전반의 정서적 질을 의미한다. 반면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영유아가 슬픔, 분노, 좌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특정 상황에서 부모가 보이는 처벌적·축소적·회피적 반응을 의미한다. 즉 정서적 상호작용이 부모-영유아 관계의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와 관계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면,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영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해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서사회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서사회화 관점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반응 방식은 영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orris

et al., 2007). 부모가 영유아의 정서 표현을 수용하고 지지적으로 반응할 경우 영유아는 정서조절 전략을 학습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지만,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높을 경우 이러한 학습 경험은 제한될 수 있다(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et al., 1999). 특히 부모와의 공동조절 과정에서 영유아는 반복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전략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무시하거나 축소하고 처벌적으로 반응할 경우, 영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조절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자기조절 발달 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이후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제공되더라도 부모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하는 공동조절의 질과 자기조절 발달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Morris 등(2007)과 Eisenberg 등(1999)은 부모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영유아의 정서조절 전략 학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정서적 상호작용과 자기조절 간 관계를 설명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영유아의 자기조절과 부적 관련이 있으며,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강선주, 임선아, 2020; 임지연, 2024; 최대훈, 2020). 또한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자기조절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백지숙, 권은주, 2017; 이안숙, 차미숙, 2024; 최혜윤, 2017). 또한 부모의 정서반응 방식은 아동의 정서표현 및 정서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하늘, 김정민, 2022; 민주경, 이희영, 2025).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자기조절 간 관계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조

건 변인이며, 두 변인 간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됨을 보고하였으며, 영유아의 자기조절 역시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자녀 관계가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자기조절 발달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자기조절은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발달기제로 제시되어 왔다. 또한 부모의 정서반응 방식은 이러한 발달 과정이 이루어지는 정서사회화 맥락으로 작용하며,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자기조절 발달로 이어지는 경로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하지영, 최혜선, 2024).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하거나, 자기조절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정서반응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이로 인해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어떠한 발달적 과정을 거쳐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부모의 정서반응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발달적 경로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 특히 부모-영유아 관계 전반을 반영하는 정서적 상호작용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지지적 정서반응을 함께 고려하여 자기조절의 발달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친사회적 행동 및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을 하나의 발달적 과정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어떠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설명하는 발달적 기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부모교육 및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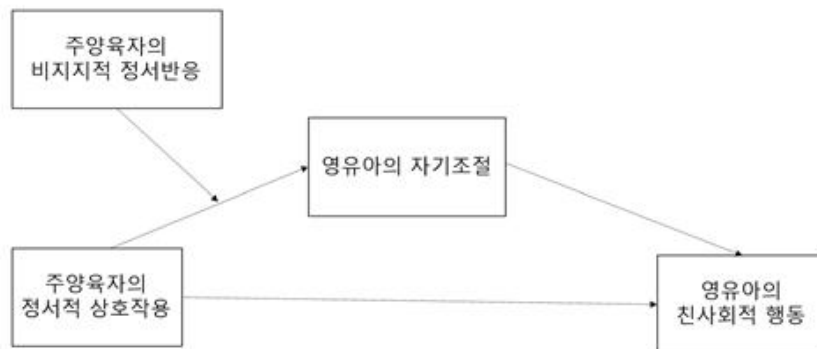


그림 1.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간의 관계 모형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독립 변인으로,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매개변인으로,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및 지역사회 내 영유아를 둔 주양육자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유아기는 정서조절과 자기조절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협력, 배려, 도움 제공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점차 구체화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주양육자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가 정서 이해 및 조절 전략을 학습하는 발달적 전환기이므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를 살펴

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양육자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주된 돌봄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정서 표현 및 행동 특성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Abbott-Shim과 Sibley (1987)가 개발한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APECP)을 기초로 김영옥(2003)이 국내 연구에 적용하여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반응성, 언어적 민감성, 상호조율, 수용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문항(14, 15번)은 역채점 처리하였다. 정서적 반응성은 영유아의 정서와 요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언어적 민감성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정서 상태를 고려하여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호조율은 부모와 영유아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서와 행동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수용성은 영유아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정서적 반응성의 경우 “나는 아이를 세밀히 관찰하여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준다.”, 언어적 민감성의 경우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글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전할 때 아이 수준에 맞춘다.”, 상호조율의 경우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아이가 울고 매달리면 아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상호작용하며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한다.”, 수용성의 경우 “나는 아이가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상호작용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반응성 .85, 언어적 민감성 .83, 상호조율 .76, 수용성 .75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확인되었다(표 2 참조).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05)

구분		빈도(명)	비율(%)
자녀의 연령대	2세	58	28.3
	3세	65	31.7
	4세	34	16.6
	5세	48	23.4
자녀의 성별	남	128	62.4
	여	77	37.6
응답자 연령대	20대	74	36.1
	30대	124	60.5
	40대	7	3.4
주양육자	기타	16	7.8
	아버지	9	4.4
	어머니	121	59.0
	조부모	59	28.8

주. 본 연구에서 주양육자는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며, 응답자 연령은 설문에 실제로 응답한 보호자의 연령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의 주양육자가 조부모로 분류된 경우에도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또는 30대로 나타날 수 있다.

표 2.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척도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정서적 반응성	9	.85
언어적 민감성	8	.83
상호조율	3	.76
수용성	2	.75
전체	22	.93

주. 14, 15번 문항은 역채점 처리함.

2)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김영옥(2003)이 개발하고 유희(2022)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 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도성은 또래관계에서 책임감 있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도움주기는 타인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의사소통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도적 배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접근 시도하기는 또래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관계를 형성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나누기는 자신의 자원이나 기회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감정이입 및 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지도성의 경우 “친구와 상호작용 시 미안하거나 고마운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을 한다.”, 도움주기의 경우 “친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며 도와준다.”, 의사소통의 경우 “함께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가 놀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함께 놀이한다.”, 주도적 배려의 경우 “현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친구에게 다가가 위로해 준다.”, 접근 시도하기의 경우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에게 좋은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나누기의 경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물건(장

표 3.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지도성	5	.74
도움주기	5	.67
의사소통	6	.75
주도적 배려	4	.74
접근 시도하기	4	.72
나누기	3	.65
감정이입 및 조절	3	.68
전체	30	.94

난감)을 친구에게 나누어 준다.”, 감정이입 및 조절의 경우 “친구의 감정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한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지도성 .74, 도움주기 .67, 의사소통 .75, 주도적 배려 .74, 접근 시도하기 .72, 나누기 .65, 감정이입 및 조절 .68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4로 확인되었다(표 3 참조).

3) 영유아의 자기조절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이정란(2003)이 개발한 부모 보고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역문항(25 ~ 31번)은 역채점 처리하였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행동과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행동억제는 충동을 조절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성은 정서적 자극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자기평가의 경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편이다.”, 자기결정의 경우 “자신이 계획한 일이 있을 경우 끝까지 완성하는 편이다.”, 행동억제의 경우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자신이 지고 있어도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다.”, 정서성의 경우 “바쁘

표 4. 영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척도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자기평가	5	.84
자기결정	11	.90
행동억제	8	.88
정서성	7	.87
전체	31	.97

주. 25 ~ 31번 문항은 역채점 처리함.

다고 하면 자신의 요구를 지연시키는 편이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 능력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자기평가 .84, 자기결정 .90, 행동억제 .88, 정서성 .87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7로 확인되었다(표 4 참조).

4)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가 개발한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을 배주희(2011)가 변안·수정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지지적 정서반응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적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반응은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부모가 불편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처벌적 반응은 영유아의 정서 표현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려는 반응을 의미하며, 최소화 반응은 영유아의 정서를 과소평가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반응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스트레스 반응의 경우 “아이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아진다.”, 처벌적 반응의 경우 “아이가 계속 울면 좋아하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최소화 반응의 경우 “아이에게 그 일은 울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비지지적 정서반응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반응 .85, 처벌적 반응 .86, 최소화 반응 .9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7로 확인되었다(표 5 참조).

표 5.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척도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신뢰도
스트레스 반응	7	.85
처벌적 반응	7	.86
최소화 반응	10	.90
전체	24	.97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수도권 및 지역사회 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와 어린이집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영유아를 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설문 참여 전 연구 목적, 연구 참여의 자발성, 익명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자료의 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연구 참여 철회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는 영유아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경험,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친사회적 행동,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 상황에서의 반응을 기준으로 문항에 응답하였다. 총 2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응답 누락이 많거나 동일 응답이 반복되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15부를 제외한 20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비지지적 정서반응을 측정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유아의 주된 돌봄을 담당하는 응답자의 보고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주양육자가 조부모로 응답된 경우에도 설문 응답자의 연령이 20대 또는 30대로 나타나, 응답자와 실제 주양육자 간 불일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응답을 해석할 때 보고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 주양육자의 행동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보고식 자료가 지니는 한계와 함께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영유아의 자기조절 매개효과와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각 변인의 왜도는 절댓값 2 이하, 첨도는

절댓값 7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의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분석 결과,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M = 3.69$)과 자기조절($M = 3.63$)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M = 2.54$)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자기조절($r = .20, p < .01$) 및 친사회적 행동($r = .20,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친사회적 행동($r = .1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영유아의 자기조절($r = -.39, p < .01$) 및 친사회적 행동($r = -.27,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변인 간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3.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24, t = 5.25, p < .001$), 영유아의 자기조절도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44, t = 12.78, p < .001$). 또한 모형은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변량의

표 6.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기술통계

변인	<i>n</i>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205	3.22	.68	-.14	-.28
영유아의 자기조절	205	3.63	.93	-.34	-.66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205	3.69	.62	-.71	.43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205	2.54	.83	.21	.09

표 7.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간 상관관계

	정서적 상호작용	자기조절	친사회적 행동	비지지적 정서반응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1			
영유아의 자기조절	.20**	1	.18**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20**		1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37**	-.39**	-.27**	1

** $p < .01$.

표 8. 주양육자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자기조절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i>b</i>	<i>SE</i>	<i>t</i>	<i>p</i>	<i>LLCI</i>	<i>ULCI</i>
(상수)	2.10	.13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24	.05	5.25	<.001	.15	.33
영유아의 자기조절	.44	.03	12.78	<.001	.37	.51

 $R^2 = .52$, $F = 110.44$, $p < .001$ 주.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LLCI* = 신뢰구간 하한값; *ULCI* = 신뢰구간 상한값.

52.2%를 설명하였다($R^2 = .52$, $F = 110.44$, $p < .001$). 이러한 결과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영유아의 자기조절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표 8 참조).

4.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자기조절 간 관계에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조절효과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자기조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 = .27$, $t = 6.22$, $p < .001$),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 = -.46$, $t = -9.20$, $p < .001$). 또한 정서적 상호작용과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여($b = -.23$, $t = -4.74$, $p < .001$), 비지지적 정서반응

이 두 변인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형은 영유아의 자기조절 변량의 8.2%를 설명하였다($R^2 = .08$, $\Delta R^2 = .02$, $F = 22.46$, $p < .001$)(표 9 참조).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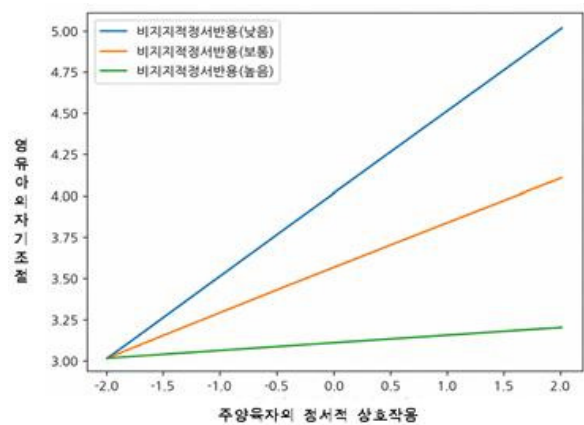


그림 2.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수준에 따른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자기조절 간 관계

표 9.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자기조절 간 관계에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조절효과

구분	<i>b</i>	<i>SE</i>	<i>t</i>	<i>p</i>	<i>LLCI</i>	<i>ULCI</i>
(상수)	3.56	.03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27	.04	6.22	<.001	.19	.36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46	.05	-9.20	<.001	-.56	-.36
정서적 상호작용 × 비지지적 정서반응	-.23	.05	-4.74	<.001	-.33	-.13

 $R^2 = .08$, $\Delta R^2 = .02$, $F = 22.46$, $p < .001$ 주.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LLCI* = 신뢰구간 하한값; *ULCI* = 신뢰구간 상한값.

응이 낮은 수준에서는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자기조절 간 정적 관계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으나, 비지지적 정서반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관계는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2 참조). 이는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정서적 상호작용의 긍정적 효과를 완충 또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5.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간접효과가 비지지적 정서반응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조

건부 간접효과 분석 결과,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평균 수준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고($b = -.27$, $Boot SE = .04$, 95% $CI [-.36, -.19]$), 높은 수준(+1SD)에서도 유의하였다($b = -.46$, $Boot SE = .06$, 95% $CI [-.57, -.35]$). 반면 낮은 수준(-1SD)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 = -.07$, $Boot SE = .06$, 95% $CI [-.21, .03]$)(표 10 참조).

이어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를 확인한 결과,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Index = -.10$, $Boot SE = .02$, 95% $CI [-.14, -.06]$)(표 11 참조). 이에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모형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10.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수준에 따른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조건부 간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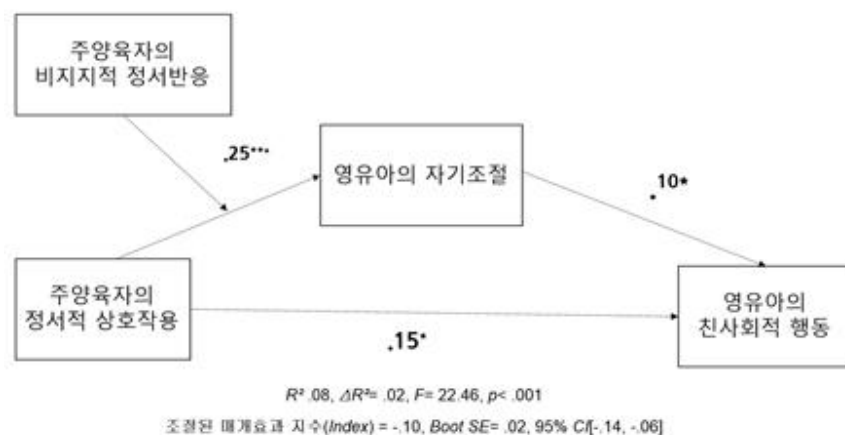
조절변인 수준	<i>b</i>	<i>Boot SE</i>	<i>LLCI</i>	<i>ULCI</i>
-1SD	-.07	.06	-.21	.03
Mean	-.27	.04	-.36	-.19
+1SD	-.46	.06	-.57	-.35

주.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Boot SE* = 부트스트랩 표준오차; *LLCI* = 신뢰구간 하한값; *ULCI* = 신뢰구간 상한값.

표 11.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조절변인	<i>Index</i>	<i>Boot SE</i>	95% 신뢰구간	
			<i>LLCI</i>	<i>ULCI</i>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10	.02	-.14	-.06

주. *Index* =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Boot SE* = 부트스트랩 표준오차; *LLCI* = 신뢰구간 하한값; *ULCI* = 신뢰구간 상한값.



* $p < .05$. *** $p < .001$.

그림 3.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영유아의 자기조절과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조절된 매개모형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유아의 자기조절 매개효과와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주양육자가 영유아의 정서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조율된 상호작용을 제공할수록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Eisenberg & Fabes, 1994; Denham, 1998; Morris et al., 200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정서사회화 관점에 따르면 부모는 영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를 고려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중요한 환경적 맥락을 제공한다(Eisenberg & Fabes, 1994). 부모가 영유아의 정서 표현을 수용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할 경우 영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하는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협력, 배려 및 도움 제공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또래 관계가 확대되고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타인의 요구를 고려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영유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조율 경험은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영유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학습 경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영유아 관계의 정서적 질이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관계적 맥락임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영유아가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행동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국내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우호경, 2023).

둘째, 영유아의 자기조절은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조절이 영유아의 사회적 행동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발달 역량이라는 선행연구(Eisenberg et al., 2005; Denham, 199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조절이 높은 영유아는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타인의 요구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배려 및 도움 제공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자기조절의 발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발달 초기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공동조절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부모가 영유아의 정서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조율된 상호작용을 제공할 경우 영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전략을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자기조절 능력으로 내재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유아는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와 충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상황의 요구를 고려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축적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협력적이고 배려적인 행동을 선택하

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공동조절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조절은 영유아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행동 선택을 조절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 발달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외적 조절이 점차 영유아의 자기조절로 전환되는 발달적 과정을 설명한 Kopp (1989)와 Thompson(2014)의 관점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자기조절이 개인 내 특성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발달적 결과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자기조절이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과정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곧바로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기보다 자기조절의 내재화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은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정서반응 방식이 영유아의 정서사회화 맥락을 형성한다는 정서사회화 이론(Morris et al., 200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평균 및 높은 수준에서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낮은 수준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발달적 경로가 주양육자의 정서반응 방식에 따라 조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영유아의 자기조절 발달 과정은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자체뿐 아니라,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양육자의 구체적인 정서반응 방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사회화 관점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반응 방식은 영유아의 정서 이해와 정서조절 전략의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Eisenberg et al., 1996; Morris et al., 2007). 특히 부모와의 공동조절 과정에서 영유아는 반복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전략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러나 주양육자가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무시하거나 축소하고 처벌적으로 반응할 경우 영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조절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공동조절의 질과 자기조절 발달 과정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이후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동일한 수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제공되더라도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 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하는 공동조절의 질과 정서조절 학습의 기회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자기조절 발달 과정이 주양육자의 정서반응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발달 과정임을 시사한다.

한편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낮은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전반적으로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정서반응 환경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정서조절 전략을 학습하는 경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서적 상호작용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자기조절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 형성 과정에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비지지적 정서반응 수준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 상황에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하는 공동조절 경험과 자기조절 발달 과정의 차이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동일한 수준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존재하더라도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하는 정서사회화 과정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자기조절과 친사회적 행동 발달 과정의 차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의 효과는 정서사회화 환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은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정서반응 방식이 함께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 반응을 하나의 통합적 발달 경로로 설정하고 조절된 매개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이 조건적 발달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자체뿐 아니라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양육자의 구체적인 정서반응 방식 또한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자기조절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중요한 조건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공동조절 경험이 자기조절의 내재화로 이어지는 정서사회화 모델을 지지하며,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이 단일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기보다 부모와의 관계 경험, 자기조절 발달 및 정서사회화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조건적 발달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을 통합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이 부모와의 관계 경험과 정서사회화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발달 과정임을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단순히 부모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공동조절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조절과 부모의 정서반응 방식이 함께 작용하는 발달 과정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양육자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정서적 상호작용 방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보다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양육자의 비지지적 정서반응이 정서적 상호작용과 자기조절 간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부모교육에서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수용적 반응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한 설정을 구분하여 다루는 정서사회화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영유아의 정서 경험에 대해서는 수용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한을 제공하는 정서사회화 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응은 영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도와 자기조절의 내재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와의 반복적인 공동조절 경험은 영유아가 점차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자기조절의 내재화 과정은 이후 친사회적 행동 발달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또래관계와 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의 지속적인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이 단순히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영유아의 정서 경험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정서사회화 과정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은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자기조절과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 자신의 정서반응 방식을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부모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양육자의 자기보고식 설문 자료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 보고 및 관찰 자료를 포함한 다원적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종단 연구를 통해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자기조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발달적 경로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양육자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비지지적 정서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주양육자의 보고를 활용하였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주양육자와 설문 응답자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 양육 행동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과 해석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다중 정보원을 활용하여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설명력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의 자기조절이 부모 요인뿐 아니라 기질, 인지적 특성, 또래 경험 등 다양한 개인 및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인 및 환경 변인을 포함한 통합적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선주, 임선아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에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23, 79-105. <https://doi.org/10.37918/kce.2020.07.123.79>
- 김영옥 (2003).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주경, 이희영 (2025).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참여의 상대적 영향력. *인문사회과학연구*, 26(4), 367-392. <https://doi.org/10.15818/ihss.2025.26.4.367>
- 박희진, 김정화 (202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자녀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4), 127-149.
- 배주희 (2011). 유아의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 권은주 (2017).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https://doi.org/10.21213/kjceec.2017.17.2.99>
- 송순옥 (201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8(3), 493-509. <https://doi.org/10.22143/HSS21.8.3.27>
- 송해민 (2025). 어머니, 유아, 가족 특성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정서사회화의 매개효과: 양육과정 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호경 (2023). 어머니가 인식한 가족건강성,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사회적 행동의 구조적 영향관계.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희 (202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족건강성,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구조적 관계: 가족 품앗이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경미, 한세영 (201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3), 83-102. <https://doi.org/10.14698/JKCCE.2017.13.03.083>
- 이안숙, 차미숙 (202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1(2), 5-27.
- 이은혜, 강정원, 박성혜 (2020). *유아사회교육*. 서울: 학지사.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란 (2007). *유아의 자기조절*. 서울: 학지사.
- 이하늘, 김정민 (202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신념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가정과삶의 질연구*, 40(4), 15-33. <https://doi.org/10.7466/JFBL.2022.40.4.15>
- 임지연 (2024). 어머니의 우울감, 양육효능감,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적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윤교, 김선희 (2026). 부모의 자녀신념과 유아의 자기조절 간의 관계에서 훈육방식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형. *아동학회지*, 47(1), 19-38. <https://doi.org/10.5723/kjcs.2026.47.1.19>
- 최대훈 (2020). 유아의 부정적 정서, 어머니의 반응유형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3), 1401-1410. <https://doi.org/10.22143/HSS21.11.3.100>
- 최혜운 (2017).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아 자기조절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2(3), 47-69.

- <https://doi.org/10.16978/ECEC.2017.12.3.003>
- 하지영, 최혜선 (2024). 유아기의 가족 및 또래 상호작용이 학령기 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1(3), 179-193.
<https://doi.org/10.15284/kjhd.2024.31.3.179>
- Abbott-Shim, M., & Sibley, A. (1987). *Assessment profile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Atlanta, GA: Quality Assist.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NY: Guilford Press.
- Denham, S. A., Bassett, H. H., & Wyatt, T. (2012). The socialization of emotional competence. In N. J. Cabrera & B. Leyendecker (Eds.),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pp. 614-637). New York, NY: Guilford Press.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https://doi.org/10.2307/1131620>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Vol. 3, pp. 646-718). New York, NY: Wiley.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https://doi.org/10.1111/1467-8624.00037>
- Eisenberg, N., Spinrad, T. L., & Eggum, N. D. (2010). Emotion-related self-regulation and its relation to children's maladjus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95-525.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21208.131208>
- Eisenberg, N., Spinrad, T. L., & Morris, A. S. (2005). Regulation, resiliency,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Self and Identity*, 4(2), 111-135.
<https://doi.org/10.1080/13576500444000229>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Description and scoring*. Arizona State University, Tempe, AZ.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https://doi.org/10.1111/1467-8624.00323>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https://doi.org/10.1037/0012-1649.25.3.343>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9.x>
- Thompson, R. A. (2014). Socialization of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2nd ed., pp. 173-18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Castro, K. S. (2007).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academic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social function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8(3), 433-455.
<https://doi.org/10.1080/1040928070143543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